

불법 도청, 특허로 잡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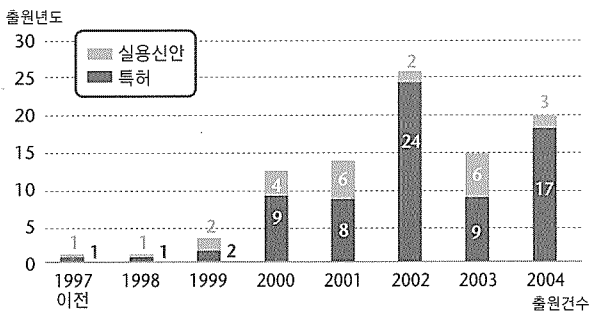
도청탐지기 관련 특허출원 증가 추세

도·감청으로부터의 사생활 보호 관심 늘면서 도청탐지기 관련 특허·실용신안 출원 증가 추세

최근 들어 도·감청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도청을 탐지하는 기술에 관한 특허 출원이 증가하고 있다. 도청을 탐지하는 기술과 관련된 국내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은 2004년까지 총 96건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1990년 이전 8건, 2000년 13건, 2001년 14건, 2002년 26건, 2003년 15건, 2004년 20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특히 2002년에는 다른 해의 2배에 달하는 26건의 특허·실용신안 출원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당시 정치사회 상황에서 국민들의 사생활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도청탐지기 관련 국내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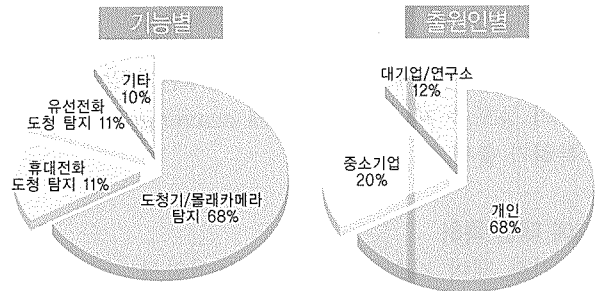
기능별로는 도청기·몰래카메라 탐지가 68%, 출원인별로는 개인출원이 68%

도청탐지기와 관련된 국내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도청기·몰래카메라의 작동여부를 탐지하는 기능이 64건(68%), 휴대전화 통화내용에 대한 도청여부를 탐지하는 기능이 11건(11%), 유선전화 통화내용에 대한 도청여부를 탐지하는 기능이 11건(11%), 기타 10건(10%)이다.

한편, 도청탐지기와 관련된 국내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을 출원인별로 살펴보면 개인 출원이 65건(68%), 중소기업 출원이 19건(20%), 대기업 및 연구소 출원이 12건(12%)이다.

도청을 탐지하는 기술로는 도청이 이루어질 때 발생하는 미약한 전자파를 감지하고 이를 증폭하여 미리 설정된 주파수와 비교함으로써 도청이 이루어지는지 또는 도청장치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

도청탐지기 관련 출원동향



사생활 보호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관련기술 출원의 증가 예상

휴대전화 내용의 도(불법) 감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도청을 탐지하거나 방지하는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여러가지 형태의 상품이 출시되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동시에 일부에서는 도청 기술 자체에 대한 관심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타인의 대화 내용을 도청하기 위한 목적의 기술이라면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발명에 대해서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특허법 제32조의 적용을 받을 것이다.

반면, 도·감청을 탐지하거나 방지하는 기술은 최근 관련 기술의 특허 획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도청탐지기와 관련된 특허 출원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청탐지기관련 출원발명의 예

1. 도청 및 몰래카메라 감지장치가 내장된 휴대폰(2003년 출원)
 도청기 및 몰래카메라로부터 발생하는 고주파 신호를 수신하고, 수신된 신호를 증폭하여 도청기 및 몰래카메라의 존재를 감지하는 감지장치를 휴대폰 케이스 내부 한쪽에 설치하여 도청기 및 몰래카메라 존재여부를 사용자에게 알려준다.
2. 손목시계형 전자파 및 도청감지기(2004년 출원)
 도선이나 도체에 흐르는 전류와 각종 전자제품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를 비접촉식으로 감지하여 신호를 증폭하고 미리 설정된 주파수와 비교함으로써 도청기 및 몰래카메라의 존재 여부를 감지하여 사용자에게 알려준다.